

썰물에 드러난 제주 섬 검은 바위와 나는 대화

제주 출신 제인 진 카이젠 등
아트스페이스씨 '달의 당김'
라이트 박스에 포착한 풍경
자연과 교감해온 겸허함 경험
현기영 산문 낭독 시간 마련



제주시 중앙로 아트스페이스씨에서 열리는 제주 출신 시각예술가 제인 진 카이젠과 거스톤 손딩 령의 '달의 당김' 연작전.

몇 해 전 어느 날, 그들의 발길은 제주 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그들은 썰물에 드러난 현무암 위 얇은 물(조수웅덩이)과 마주했다. 달의 당김과 밀어냄으로 일어나는 밀물과 썰물은 화산섬 제주가 걸은 길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리게 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거주하는 시각예술가인 제인 진 카이젠과 거스톤 손딩 령.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아트스페이스씨에서 2013년과 2017년 각각 개인

전을 열었던 이들은 제인 진 카이젠은 제주가 고향이다. 두 사람이 제주자연과 공조하며 얻은 작품들로 이달 12일부터 아트스페이스씨에서 2인전을 갖는다. 이들이 작업한 '달의 당김' 연작 6점

은 나무로 된 조형 상자에 담겼다. 제주사람들이 습한 염원이 투영됐을 자연의 빛나는 빛깔을 포착하기 위해 택한 방식이었다. 화면 안에는 두 사람이 해변에서 발견한 사물들, 여러 해 동안

제주와 인연을 맺으며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들이 직관적으로 배치됐다. 제기 그릇에 놓인 감귤, 동전, 명실, 해조류 등으로 이 같은 이미지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풍경을 되새겨보라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짧은 썰물의 순간에 나타나는 풍경을 붙잡는 작업은 두 작가에게 오랜 기다림을 요구했고 이는 그들을 겸허하게 만드는 경험이었다.

제인 진 카이젠은 아트스페이스씨 안혜경 대표와 나는 영상 인터뷰에서 "해녀와 심방들이 자연과 교감해왔던 겸허한 접근"을 언급하면서 "인간도 자연이나 자연 환경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풍경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시는 11월 10일까지(일·월요일 휴관). 이달 22일 오후 4시30분에는 '소설가는 늙지 않는다'는 산문집에 실린 '잠녀의 일생'을 현기영 작가의 육성으로 듣는 시간을 갖는다. 전선희기자



황학주의 제주살이 (5)

변시지의 그림에 관한 단상

육지에서 손님이 오면 데려가는 곳이 있다. 만약 서귀포 쪽으로 가고 싶은 손님이라면 설섬이 보이는 구두미포구와 변시지 그림이 상설전시된 기당미술관을 포함시킨다. 지난 토요일엔 손님 때문이 아니라 '변시지 유럽기행전'이 오픈해 기당미술관에 갔다. 기존의 변시지 그림들을 그대로 두고 유럽 풍광을 새로이 이어 달아놓은 전시이다.

대체로 변시지의 그림 속에 태양은 일렁이며 세계는 불가사의한 노랑인데, 검은 선획으로 그려진 소나무에 몸을 기댄 초가가 있고, 구부정한 사내는 지팡이를 짚고 때로 쪼그리고 앉아 얼굴을 숙인 채 마른 먹선으로 조각배 한 척을 띄우고 고립된다. 그 자리는 없는 누군가의 옆자리일 것이다.

태풍 시리즈는 압도적인 검붉음이다. 울부짖는 파도는 사막의 모래와도 같아 인간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소해 줄 수 없고, 조랑말과 함께 남겨진 사내가 희미한 길 하나를 겨우 직각으로 일으켜 세우며 삶에 대한 질문을 향해 답버린다. 그에 답하여 화가는 폭풍 일대야말로 거기가 어디이든 세상의 끝자락 어디라는 것이며 인간에게는 그곳이 곧 삶의 중심이라고 짚어주는 듯하다. 끝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람이며 고난이라는 듯.

이번에 공개된 유럽기행 그림들 또한 변시지의 작업방식을 그대로 따른다. 몽마르트 언덕이나 로마 도심을 그릴 때에도 주위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사람만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혼자서 아니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것이

다. 그리고 화려한 건축물들 또한 거친 골격만으로 존명하고 있어, 조랑말 하나와 절벽을 기어 올라간 듯한 사내의 초가집 한 채만이 덜렁 없던 제주 해안과 다를 바 없다. 유럽의 풍광 앞에서도 화가가 내린 결론만이 두드러지는 이런 세상에 놀랐다는 듯 감상자들은 수군거린다. 그림 속의 사내는 관찰 가운데 발생하는 변형된 화가 자신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소리가 있다. 변시지의 그림엔 제주나 유럽 등 장소불문, 사위가 절멸처럼 고요할 때 낫끝이 지나간 단순한 흑백 또는 황갈색 속으로 말할 수 없어 묻어둔 소리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의미와 신음소리 등이 배어 있다. 거기엔 제주 자체를 삶 속

기당미술관 변시지 유럽기행전 흑백이나 황갈색 그림 속 소리 제주를 떠안고 표상하는 울음

에 떠안고 표상하는 울음이었으며, 성난 바람의 예감을 달래며 바람의 맨 앞장에서 삶의 방향을 가능했던 밤배였으며, 어머니의 어머니였으며, 우리의 눈앞에서 인간에게는 그곳이 곧 삶의 중심이라고 짚어주는 듯하다. 끝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람이며 고난이라는 듯.

기당미술관을 나와 구두미포구까지 가면 해안을 걷는다. 이어서 내가 들르는 곳은 마을 초입에 신다리를 파는 비닐하우스 두막이다. 길모퉁이 작은 주막 평상에 앉아 신다리 한 주전자들 시켜놓고 오늘은 그렇게 눈앞의 설섬과 멀리 떠 있는 지귀도에 눈을 맞춰 보는 것이다. <시인>

동네책방 상생 프로젝트 예술공간 이아 '책 치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제주 시 원도심의 예술공간 이아가 동네책방과 상생하는 '책치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매월 한 곳의 지역책방을 소개하고 '책치유' 프로그램으

로 꾸며진다. '치유'를 키워드로 책방지기가 직접 큐레이션을 10권의 책을 옛 제주대병원 예술공간 이아 내 이아살롱과 책방에 각각 비치해 방문객들에게 알리고 추천 도서를 매개로 책방지기가 기획한 참여형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첫 일정은 이달 16일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바라나시책골목'과 함께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공간 이아 홈페이지 참고. 문의 800-9337.

제주 청년연극제 첫발 12~13일 문예회관 소극장 '라이어' 공연·뮤지컬 갈라쇼

제주 청년들의 열정을 담은 연극제가 닷을 울린다. 이달 12~13일 오후 7시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제1회 청년연극제다.

20~31세 연령의 단원들로 구성된 제주 청년극단 레드(red)가 제주청년센터의 '청년덕질' 사업 지원을 받아 기획한 이번 청년연극제는 '청년을 연출하다'란 표어를 내걸었다. 극단간 네트워크와 제주 청년들의 예술성과 창조성을 개발한다는 취지 아래 극단 레드들 중심으로 첫걸음을 뗀다.

연극제 기간에 선보이는 작품은 1998년 국내 초연 이후 꾸준히 공연되고 있는 영국 극작가 레이 쿠니의 '라이어'다. 강지훈 총연출로 고훈민, 김민건, 문준엽, 우준희, 정다혜, 고영은, 강지훈이 출연한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김다은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뮤지컬 갈라쇼가 펼쳐진다. 폐막식은 극단 레드와 청춘 모닥치기 단원들이 참여한 언택트 뮤지컬로 꾸민다. 이번 연극제의 총기획자인 강지훈 레드 단장은 '청연'으로 약칭되는 제주청년연극제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제주의 공식 청년 행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결궁 경연 부활 속 맥락 없는 공연 나열

60회 탐라문화제 막 내리 가장 경연 이호동 탐라상 결궁 성산읍 최우수 차지 해상 퍼레이드 취지 반감 개·폐막 코로나 여파 차질

제주도와 제주예총이 주최한 60회 탐라문화제가 10일 경연 시상식과 폐막 공연 스태프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차질을 빚었고 60회를 기념해 기획한 해상 퍼레이드는 축제 직전에 변경됐다. 그나마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중단됐던 읍면동 민속보존회의 결궁 경연과 제주문화 가장 퍼포먼스 경연이 2년 만에 열렸고, 여성이 처음 제관을 맡은 삼성형 탐라개혁신위제가 부활하며 탐라문화제의 전통을 이었다.

2년 연속 코로나19 속에 개최된 탐라문화제였지만 60회의 의미를 더한 올해는 전년보다 54.5% 증가한 예산으로 축제를 치렀다. 질적 성장을 이뤘는지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다.

19개 민속보존회가 출연한 제주문화 가장 퍼포먼스 경연 결과 탐라상은 이호동 민속보존회의 '조발 불리기'



10일 탐라문화제 특별공연에서 김덕수와 양상블시나위가 신명의 연주를 펼치고 있다. 강희만기자

에 돌아갔다. 두 팀이 참가한 결궁 경연은 성산읍 민속보존회의 '성주풀이'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 시국을 건너는 예술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공모를 통해 에총 회원 단체 행사를 늘렸고 질성로에서는 아트마켓을 시도했다. 읍면동 청사에서 탐라문화제 기록 사진 전시로 축제의 추억을 나눴다.

하지만 축제 운영의 난맥상도 노출됐다. 15척의 어선에 제주 미술인들이 제작한 제주 신화 조형물을 설치해 운항 예정이던 한글날 해상 퍼레이드는 해상 안전을 이유로 야간에서 주간 행사로 바뀌었고, 조형물은 깃발로 교체됐다. 제주항 어선부두-용담 다그네

포구 구간에 이 행사를 알리는 홍보물 하나 없이 사후 영상물 제작으로 끝내는 등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렸다.

온라인 채널을 가능했으나 코로나19 이슈 대응엔 취약했다. 도내 주요 공연장을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등 전시형식보다는 현장 공연 프로그램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개·폐막 행사에서 보듯 청사에서 탐라문화제 기록 사진 전시로 축제의 추억을 나눴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축
CONGRATULATIONS
수 훈
국민훈장 석류장

강창익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복지향상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헌신하신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훈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서귀포시 노인대학(원)장 협의회원 일동
대학원장 : 노상준 대학장 : 한성을 고상호 김순이 김정현 정문후

축
CONGRATULATIONS
수 훈
국민훈장 석류장

강창익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국가발전과 노인복지를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시 노인익식개선교육 강사
서귀포문화원장 강명연
前 서귀포시교육청장학사 고재욱
前 초 등 교 장 양기휴

축
CONGRATULATIONS
수 훈
국민훈장 석류장

강창익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제25회 노인의 날을 맞아 국가 발전과 노인복지를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회장단 일동
지회장 강창익
명예회장 홍명표 자문위원장 한성울
부지회장 송대원 강능자 고병주 김정득

축
CONGRATULATIONS
수 훈
국민훈장 석류장

강창익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국가발전과 노인복지를 위해 헌신하신 공로로 영예의 국민훈장을 받으신 지회장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동흥동분회
분회장 김태진 직정회장 오음집
1 통령로당 회장 강세훈 2 통령로당 회장 강태전
5 통령로당 회장 김성자 6 통령로당 회장 박성배
7 통령로당 회장 이일섭 부부통령로당 회장 김문숙
9 통령로당 회장 진성현 10 통령로당 회장 최영준
11 통령로당 회장 유정현 12 통령로당 회장 원수원
코아루 통령로당 회장 김성도 샴아메 통령로당 회장 오동수
분회 사무장 홍정희